

'97동남아시아 전자공업의 동향 조사 보고서(Ⅲ)

조 사 부

목 차

I. 국가별동향

6. 태 국
7. 필 리 핀
8. 말레이시아
9. 싱 가 폴
10. 인도네시아

6 태 국

1. 일반개황

1) 감속하의 태국경제

'93~'95년에 년 8%대의 성장을 지속해 온 태국경제도 '96년에는 6.2%로 성장율이 둔화하였는

본고는 일본전자기계공업회(EIAJ) 부품운영위원회에서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한국, 대만, 홍콩 등 10지역에 동남아시아 조사단을 파견하여 각국의 기기업체 정부관계기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한 보고서를 본회에서 번역 게재한 것임.

바, 그때까지 높은 신장을 보여온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태국의 노동집약 제품은 임금상승 등 생산코스트 상승에 의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비교해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민간투자 및 민간소비도 감소하고 있다. 마크로 경제의 악화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에 더하여 소위 버블경제의 붕괴에 의한 불량채권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금융문제로 파급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97년의 성장율은 4.6%로 예측되며, 이는 '86년이래 11년만에 저성장을 기록하는 것으로 태국경제는 현재

조정국면에 들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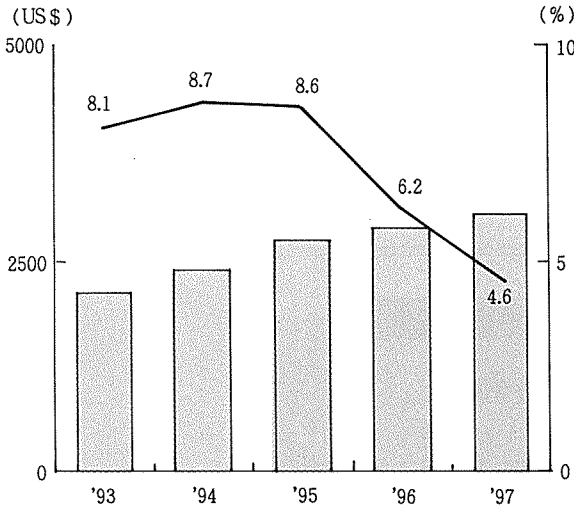
2. 전자공업의 동향

1) 건조한 전자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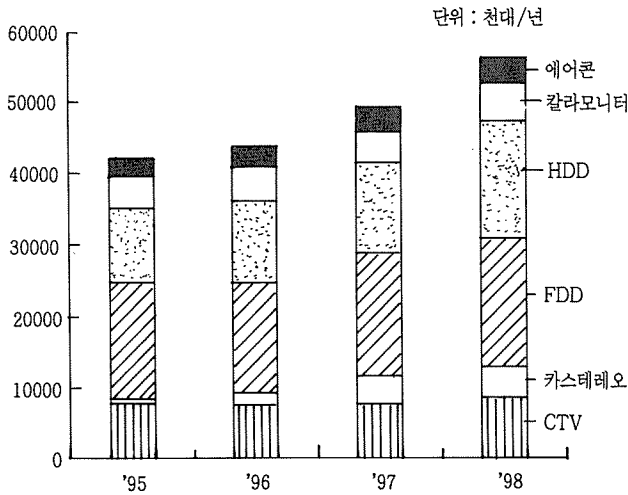
태국경제침체의 영향으로 국내 수요는 하락하고, C-TV는 재고조정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출에 있어서는 건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반 오디오의 생산은 거의 없지만, 카스테레오는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PC주변기기는 유수의 기업이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데, 특히 HDD는 싱가포르 등과의 분업

[그림 1]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추이



[그림 2] 주요전자기기의생산대수



대가 그 목표이다. 태국의 4륜차 수요는 1996년에 600천대 1년 (트럭 70%, 승용차 30%)까지 성장하였고, 2000년에는 900천대의 규모가 되며, 2000년 이후에는 승용차 중심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180천대의 승용차 시장중 50%를 도요타와 혼다가 이등분하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그 외의 10개사가 점유하고 있다. 도요타와 혼다는 모두 독자적인 태국제 아시아 카를 내걸고 로칼 수요획득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98년에는 GM과 FORD도 가동을 결정하고 있어, 태국은 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서 아시아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기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을 추진하는 등 여전히 확대기조에 있으며, HDD의 I사는 태국의 제3준에서 확대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또 금후 이동체통신의 인프라 정비와 통신단말의 수요가 급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기의 생산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

상된다.

2) 기지화하는 자동차산업

태국의 자유로운 산업정책에 의해 전세계의 주요 자동차 메이커가 태국에 집결해 있는데 2륜차의 성공에 이은 4륜차의 시장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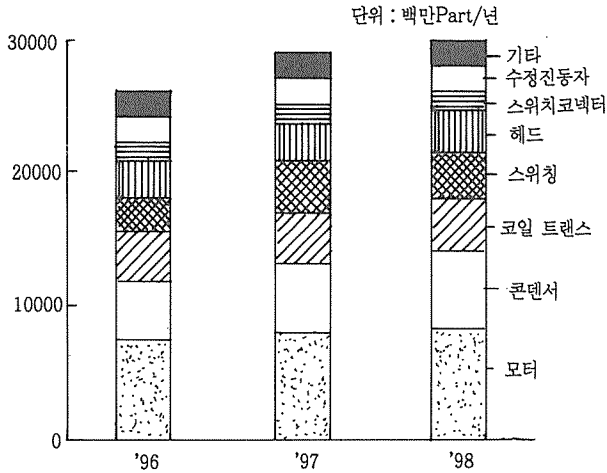
3. 전자부품의 동향

1) 저변을 확대하려고 하는 전자부품

전자부품기업의 태국진출은 일 단락된 상황이다. 스피커 등은 코스트업을 이유로 중국으로 재이전하는 케이스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전자부품 각사는 현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태국 경기에 따라 좌우되는 부품도 있지만, 정보통신기기용 전원이나 모니터 등 부품 시장전체는 여전히 확대기조에 있다. 태국은 말레이시아 등과 비교해 전자산업의 저변이 넓지 않기 때문에 부품공급규모는 작다.

[그림 3] 주요전자부품의생산추이



따라서 부품조달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많지만, 태국의 세트메이커는 태국내에서의 부품조달을 상승을 바라고 있어 부품메이커중에는 태국내에 판매회사를 설립하려는 메이커도 있다. 그러나, AFTA (ASEAN 자유무역구상) 과 CEPT(공동실효특혜관세)를 염두에 둔다면 태국은 서비스면에서의 향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2) 가격하락 진행

전원, 전해콘덴서 등은 대만과 한국의 부품메이커가 가격공세로 나오고 있어, 가격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수량베이스에서 신장해도 금액면에서는 그다지 신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자동차용 수요는 이제부터

자동차에 대해서는 심장부인 엔진, 엔진컨트롤유닛(ECM), 주요 전장모터는 현재 일본으로부터의 조달이 중심이다. 몰드, 프레스는 태국내에 체제가 정비되어 있어 현지조달율이 높지만 자동차 각사는 더욱 현지조달율을 높일 의향을 갖고 있어 금후 전자부품의 현지조달수요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 노동환경

1) 아직 풍부한 노동력

방콕지역에 집중적으로 기업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일손부족이 우려되었지만, 다이렉트워커(Direct worker)의 채용은 방콕으로부터 50~70km 떨어진 आयुता야 부근에서도 모집을 하면 채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매니저급이나 엔지니어의 확보는 어려워 여전히 수급균형의 갭이 크다. 특히 이들

의 잡호핑(Jop hopping)이나 고임금요구에 각사 모두 고심하는 상황이다. 지역별 평균임금 비교에서는 '96년 기준으로 방콕 7000바트(baht)/월, 치앙마이 4500바트/월)로 큰 차이가 있다.

방콕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는 아직 노동코스트면에서의 매력 남아 있고 태국정부도 제 2, 3존으로의 유치를 장려하고 있으나, 교통, 물류 등 제반 인프라정비가 최대의 과제이다.

또한, 자동차산업 진출에 의한 전자산업에의 영향은 적은데, 비록 자동차산업의 임금이 전자산업보다 10% 정도 높지만 작업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노동력의 이동이나 임금상승을 초래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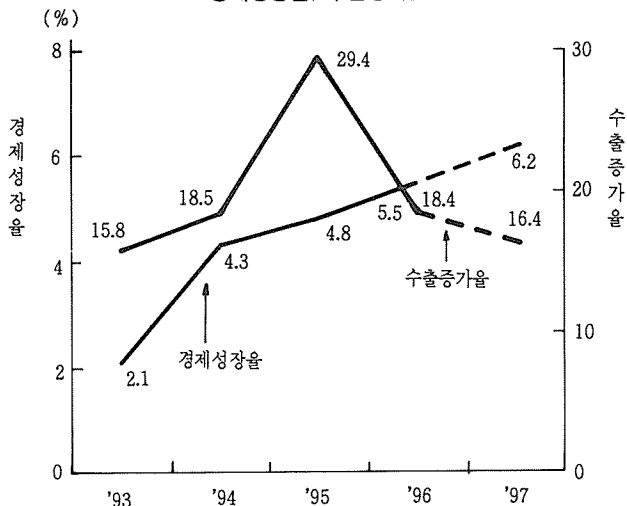
2) 해결되지 않고 있는 노동쟁의

노동쟁의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위법노동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미숙한 조합으로 인해 이에 대한 대응이 과제가 되고 있어, 최근 모 공업단지의 대표는 정부에 「위법 노동행위에 대한 정부 대응의 강화」와 「경제성장을 및 인플레이에 근거한 최저임금기준의 설정」을 요구한 바 있다.

5. 투자환경과 태국의 장래

1) 주춤한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94~'96년에 제3차 투자붐이 있었으나, '97년부터는 다시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배경은 방콕부근의 공업단지가 거의 입주 완료되었고,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등에 비교적 진출조건이 좋은 지역이 대두한 점을 들 수 있다.

또 이제까지 태국진출의 메리트는 국정안정, 노동임금의 저렴, 양질의 노동력, 타당한 우대정책, 국내시장의 장래성 등이 있었으나, 최근 정국과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 노동 코스트의 상승, 교통 인프라 문제, 저조한 현지조달비율 등이 “클라우드 업”되고 있다.

더욱이 통관절차가 여전히 번거롭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BOI(투자위원회)에 대해서는 진출기업의 요망을 성실히 듣고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통관문제에 권한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개선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전반에 있어서는, 최근의 금융문제가 경제구조의 취약성에 기인한다고 하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태국정부는 이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1국가 1민족」으로 Country Risk가 없다는 점은 태국이 갖고 있는 큰 메리트의 하나로 재인식되고 있다. 금후 태국이 인근제국에 대해 우위성을 유지하고 발전 내지는 리드해 가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취학율의 향상」과 「경제력을 갖는 로칼의 성장」이 열쇠라고 말할 수 있다.

한때 거론된 적이 있는 바트권 구상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태국으로서는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그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재로써는 미지수이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데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태국이 안고 있는 과제들을 극복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현지 주재원들은 「태국은 착실히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인 '93년부터 회복기에 시작하여 '94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였다.

경제성장률은 '96년 전기·전자 부품을 중심으로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 수출과 국내·해외기업에 의한 왕성한 투자에 뒷받침되어 5.5%를 달성하였고, '97년에는 더욱 신장된 6.2%를 예측하고 있다.

특히 수출은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기기, 반도체, 부품이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수요에 의해 18%를 초과하는 높은 신장을 기록하였다.

7. 필리핀

1. 일반개황

— “필리핀 2000” 슬로건하에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필리핀 경제 —

필리핀 경제는 라모스정권 이후

2. 인프라 환경

— 인프라는 개선되고 있으나, 마닐라 수도권외의 교통정체는 심각 —

(1) 전력...공급 설비는 국영·민영 모두 증가되고 있어, '93년 후반부터는 주요 도시 및 각 공업

단지에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순간 정전이나 전압변동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진출기업의 대부분은 자가발전설비를 갖추고 있다.

(2) 수도...주요도시, 공업단지에서는 공업용수로서 확보되고 있다.

(3) 통신...공업단지에서는 전화, 텔렉스, FAX 회선을 확보하고 있어,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큰 문제는 없다.

(4) 항만...마닐라항은 대선(待船) 시간이 증대경향에 있어, 2000년까지 신콘테이너터미날이 정비될 예정이다. 수빅항은 장래에는 상업항으로써 전환해 동남아시아의 중심적 콘테이너 항으로써 개발할 계획이다.

(5) 공항...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은 가까운 장래에 그 수용량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00년을 목표로 클라크 미공군기지를 민간 국제공항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진행중이다.

(6) 도로...도로망은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을 커버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벗어난 공업단지에의 액세스 도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국도를 포함하여 도로의 질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또 마닐라 수도권의 교통정체는 매년 악화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3. 투자환경

—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과 전자산업의 확대 —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2000」 하에서 「중기 필리핀 개발계획 '93~'98」에 따라 경제개발 우선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기업의 유치가 경제발전에 불가결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외자유치책을 기동으로 한 외국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95년 6월 새로이 특별경제구법을 제정하고 기존의 수출가공구와 공업단지를 포함한 특별경제구(ECOZONES)를 설정하여, ECOZONE기업으로 등록되면 더 많은 우대조치를 향수할 수 있게 되었다.

'95. 5 현재 ECOZONES는 19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새로이 33개소를 설치할 계획도 발표되었다.

ECOZONES의 개발·운영·관리는 새로이 설립된 필리핀 경제구청(PEZA)에서 행하고 있다. 필리핀 진출기업의 특징으로서는 최근 HDD, FDD, 마더보드 등 정보통신산업의 적극적인 전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외자유치책의 강화에 더하여, '70년대부터의 미국계 기업에 의한 반도체 중심의 기술산업기반의 축적과 질 높은 노동력이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국별외국 직접투자상황》

단위: 백만US\$

		'94	'95	'96(1~4)
(국별)	총액	882	815	155
	일본	70	244	30
	미국	76	56	1.6
	홍콩	49	236	15
	한국	6	8	0.6

4. 노동환경

—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과 안정적인 공급 —

'96년 현재의 인구는 7,0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이중 노동인구는 3,000만명이고 현재 취업인구는 2,700만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업율은 저하경향에 있지만 아직 7~8%로 높은 편이다.

인구구성비로는 0~29세의 인구비율이 65%를 점해 풍부한 노동력 풍요로운 장래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 양질의 노동력

필리핀의 식자율(識字率)은 90%에 가까워,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높은 수준에 있다. 대학수는 1282개교(국립 263개, 사립 1019개)로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4~5배이며, 교육수준이 높아 고등교육 취학율(20~24세)은 35.3%, 여자 40.3%로 ASEAN 국가중에서는 가장 높다.

또, 기술계 대학의 졸업자는 정

보기술계를 포함해 28만명이 매년 공업계 대학 졸업자로서 탄생하고 있다. 이러한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이 외국의 진출기업에 있어서는 매력적인 요인으로 필리핀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2) 노동임금

필리핀에는 최저임금제도가 재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 매년 지역별로 정해진다. 임금상승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과거 10년간 약 2.4배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폭이 눈에 띄게 두드러져 마닐라 지역의(상승율은 '96년 13.8%, '97년 12.1%),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당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중식의 일부보조가 있을 뿐으로 상여, 가족, 주택, 교통비 등의 수당은 없다. 또 지방의 최저임금배이스는 마닐라 지역에 비해 20~30% 낮다.

(3) 기타

필리핀은 영어권으로 영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매니지먼트가 가능해 현지 종업원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문제가 적다.

노사관계에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지만, 수출가공구 내에서의 스트라이크는 규제되어 있고 조합이 없는 기업도 있다. 전체적으로 노동쟁의는 진정

화되는 경향에 있다.

5. 전자공업의 동향

— 수출 지향형 전자산업의 확대 추진 —

필리핀의 전기·전자산업은 '50년대부터 생산이 개시된 국내시장용의 가전산업과 '70년대부터 생산이 시작된 수출지향형의 반도체, 정보기기관련 제품 및 부품이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나 정보기기관련 제품생산에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FDD생산량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생산기지로 자리잡고 있다.

(1) 주요기기의 생산상황

가전기기 메이커는 일본계 6개사, 현지 업체 1개사가 있으며, 국내 수요를 대상으로 하여 C-TV, 가라오케,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C-TV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으며 보급율은 35% 정도이다. 수출기기로서는 카스테레오, 코드레스폰, FDD, HDD가 비교적 대규모로 생산되고 있다.

(2) 전자부품의 생산상황

필리핀의 전자부품산업은 수출지향형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계 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기기메이커의 전자부품조달은 대부분이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집중구매(IPO)로, 현지조달은 판금이나 수지가공품이 중심이다.

대표적인 가전기기 메이커의 부품조달사례를 보면, 국내조달 40%, 일본조달 15~20%, 나머지가 IPO조달로 되어 있다.

또, 대만계 메이커의 진출이 활발하며, 주요 생산품목은 PCB, 자기헤드, 마더보드 등이다.

6. 기타사항

— 우위성을 살리는 경제정책이 금후의 열쇠 —

(1) '98년 차기 대통령선거에서의 국민의 평가가 주목된다. 라모스 대통령이 2기 연속으로 선출될 가능성은 적지만, 누가 차기정권을 맡든 모든 것이 급변하는 일 없이 현정권의 기본적인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필리핀이 갖고 있는 ASEAN에서의 지리적 우위성과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을 기타의 정책과 어떻게 조화시켜 중장기적 경제정책을 수립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2) 해외진출 노동력은 '96년 현재 약 400만명으로 추정되며, 모국에의 송금액은 100억불에 달하고 있다.

8 말레이시아

1. 일반개황

1) 높은 경제성장을

'96년에 8.2%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97년에도 8.0%의 높은 신장이 예측된다.

1인당 GNP도 '97년에는 4,890달러로 5000달러에 가깝다.

'98년의 「코넬즈 98」(영연방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신공항, 철도, 경기장 등 건설분야에서의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98년까지는 높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최근 일본의 매스컴에서도 “멀티미디어 슈퍼 코리드”(MSC)라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말레이시아의 산업고도화추진 정책으로 '98년에 완성예정인 신공항을 중심으로 동서 15km, 남북 50km에 이르는 구역에 광화이버 망을 깔고 정보통신산업 등 하이테크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MSC를 필두로 말레이시아에서는 종래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탈피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려고 하는 변혁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95년	'96년	'97년예측
1인당 GDP(US\$)	4,008	4,457	4,890
경제성장률(%)	9.5	8.2	8.0
소비자물가상승률(%)	3.4	3.6	3.5
실업률(%)	2.8	2.6	2.5

2. 노동환경

1) 심각한 일손부족

50만명이나 되는 외국인 불법노동자의 치안 문제를 이유로 금년부터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신규입국 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손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 일손부족이라고 하면, 종래에는 오퍼레이터가 중심이었으나, 지금은 영업매니저, 사무원 등 광범위한 직종에 걸쳐있어 부족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2) 급등하는 인건비

평균임금의 상승율은 년평균 8%로 높은 편인데, 그 보다도 기업사냥꾼의 스카우트에 의한 영업매니저, 중간관리직 이상의 임금상승은 50% up으로 기업의 대응가능 범위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싱가포르 기업의 말레이시아 진출과 로컬기업의 성장 등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급후에도 산업의 고도화와 병행하여 인건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3. 전자산업의 동향

1) 주요기기의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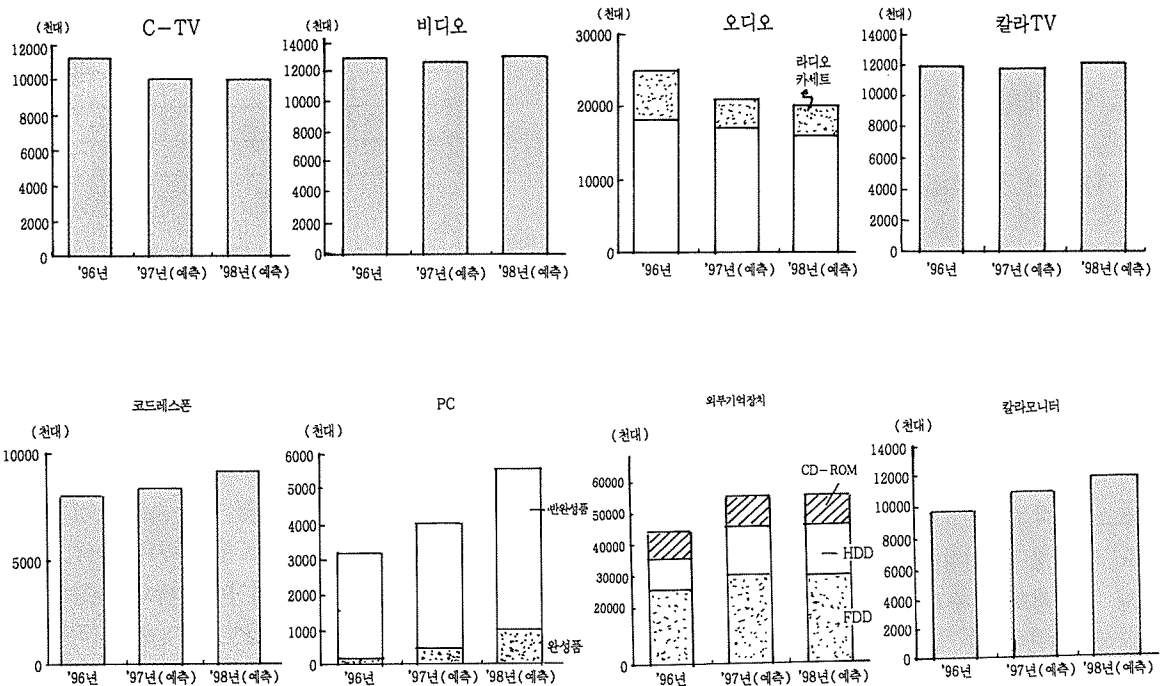
AV기기의 생산이 정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보기기쪽이 신장되고 있다. AV는 저급품을 중심으로로우 코스트를 추구해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지로 이전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에는 MD부착 스테레오 등 고급기종의 이전이 시작되고 있다.

한편 VTR은 안정된 생산이 계속되고 있어 여전히 세계 최대의 공급기지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있다. 정보관련기기에서는 PC주변기기의 신장이 현저하다.

2) GSP졸업, 엔저영향

'97년 1월 부터의 GSP졸업은 말레이시아로부터 타국에의 재이전에 박차를 가하게 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보다도 일손부족, 임금상승이라는 쪽이 인팩트가 높다.

엔저의 영향은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의 역이전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시되고 있지 않다.



3) 주요 부품생산 동향

정보관련용 부품 및 장치산업적 부품의 생산은 신장되고 있으며, 금후에도 견실히 추이할 것으로 생각되나, 노동집약적 부품은 감소하고 있다.

일손부족, 임금상등으로 인해 금후 고부가가치형 이외의 신규 부품메이커의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4) 일본계 이외의 부품메이커의 동향

대만계 부품메이커는 말레이시아의 일손부족과 임금상등을 피해 중국대륙으로 생산을 이전하고 있다. 한국계 부품메이커는 한국 세

트메이커의 말레이시아에의 진출에 따라 동반 진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본계 세트메이커와의 거래에는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

단, 부품에 따라서는 가격면에서 적극공세로 나오고 있어 가격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

EU계는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다.

4. R&D와 IPO의 동향

1) R&D의 현황과 문제점

R&D기능을 갖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메이커를 제외하면 설계단계부터 현지에서 행하고 있는 곳은 없고 마이너체인지나 부품의 리프래스먼트가 중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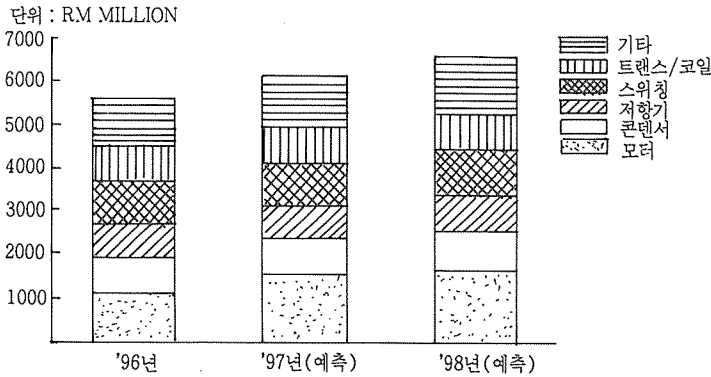
부품승인에 대해서는 아직 일본에서 행하는 곳이 많고, 가공품이

나 메카부품은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있어서의 R&D의 최대의 문제점은 기술자의 부족으로, 기술자가 종업원 이상으로 부족하며, 전직율이 높아 기술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현지화를 위한 최대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2) IPO의 동향

'96년 10월에 발표한 「말레이시아 '97년도 예산」에서 「말레이시아 세계개혁안」으로써 IPC(국제자재조달지점)이 제안되었다. 「IPC」에서는 다국적기업이 말레이시아에 마케팅 및 물류의 중심거점을 설치할 것과 중소기업의 현지생산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

주요부품생산동향



가가 부품메이커가 안고 있는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9. 싱가포르

1. 일반개황

1) 장기 안정성장

'93년, '94년의 2년연속 2자리 성장을 올린 싱가포르 경제는 '96년에 들어 제조업의 43%를 점하고 있는 전자산업이 세계적인 시장침체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예상 이하의 7.0%에 머물렀다.

'97년의 경제성장은 전자산업이 언제 회복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집약되고 있으나 후반에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6.7%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

1인당 GDP는 '97년도에 27,000불을 초과해 거의 미국과 같은 수준이다.

2) 제조업의 고 코스트 구조의 전환

왕성한 민간투자자와 금융, 운수 등의 기능은 충실하지만, 정부의 지침에 의해 GDP전체의 25%를 점하고 있는 제조업은 '94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자산업에 있어서의 가정용기기 및 반도체의 침체는 '96년에 전년대비 30%대에 머무르는 등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말레이시아 IPO의 메리트, 디메리트〉

메리트	디메리트
1. 부품의 공급기지가 말레이시아에 있다.	1. 선편사가 싱가포르에 비해 훨씬 적다.
2. 말레이시아 정부의 IPO 기능강화책(IPC)	2. 수출절차에 시간이 걸린다.
3. 싱가포르에 비해 경비가 저렴하다.	3. 관리 수준이 낮다.
4. 이미 셋트메이커가 말레이시아의 생산거점에 구매기능을 갖고 있다.	

* IPC=International Procurement Center

로 각종 우대조치를 인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IPC」의 제안외에 아래 도표의 메리트와 디메리트가 있어 말레이시아에 IPO기능을 옮기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아 기존의 싱가포르 IPO와의 균형 등을 이유로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 몇개 사에 머물러 있다.

5. 부품메이커의 동향과 과제

성장을 계속해 온 말레이시아의 전자공업도 세트의 2차이전이 진행되어 수요가 한계에 달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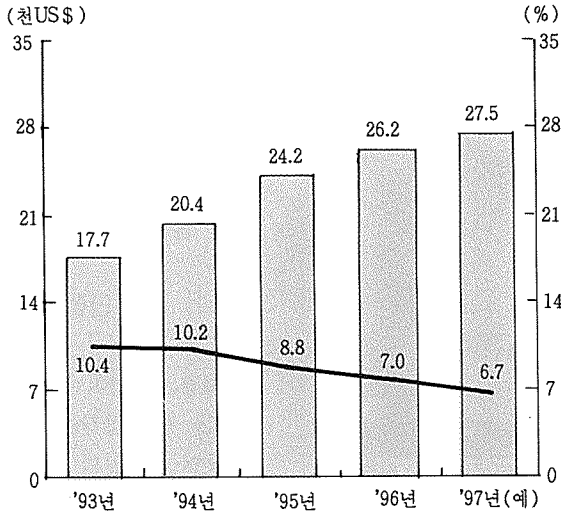
이며, 또 엔저와 부품의 생산능력 과잉에 의해 종래에 없던 가격하락이 발생하고 있다.

전자부품 각사의 앙케이트에 의하면, 현지 통화베이스로 '94년 당시의 매상수준으로는 '98년에나 되돌아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내수산업이 왕성하기 때문에 일손부족과 임금상승이 현재 부품메이커의 생산성 향상과 채산성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장선상에서의 성장을 더이상 생각할 수 없게 되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이 얼마나 순조롭게 대응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과 1인당GDP추이



정부는 이러한 제조업의 감속요인에 대해 신속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제경쟁력 향상의 관점에서 싱가포르 경쟁력위원회(CSC) 설치에 의한 장기 경제전략의 입안을 행하였고 또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5년간 40억불), 국가차원의 인재 재개발을 위한 장학금제도(년간 500명)와 인재육성을 위한 보조금을 기업에 공여하는 구상 등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제조업의 고 코스트 구조에 대응한 것으로 경제의 밑받침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즉각적인 효력발생에는 의문이 남는다.

2. OHQ(Operation Head Quarter)기능의 변화

1) 일본계 기업 165개사의 앙케이트 조사

OHQ 또는 RHQ(리조날 헤드쿼터)를 갖고 있는 회사는 회답회사 165개사중 25%인 41개사로 그 형태는 독립회사가 23개사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설립이유는 「정보·물류·인프라 정비면이 좋다」에 이어 「인접국에의 악세스가 좋다」와 「주재원 가족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가 주요 이유였다.

또한 R&D기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전체의 39%인 49개사로, 그 형태는 독립회사가 8%, 4개사로 적으며 대부분은 부문으로써 갖고 있다고 하는 앙케이트 결과가 나왔다.

이 앙케이트에 의한 실태를 반영해서인지 OHQ로부터 MHQ(Mamufacturing Head Quarter)로 기능을 변화시켜 ASEAN 각국에 대해 거점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2) IPO기능·존재의 저하

IPO의 취급금액은 '92년을 피크로 포화상태에 있으며, 그 기능이 저하하고 있는 요인은 커미션 문제와 납기확보에 있다.

한개의 공장에서 대량생산을 행하던 국제분업의 형태가 무너지고, 지역마다의 생산·판매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품수요는 IPO에서 탈피해 현지조달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3) R&D기능의 분산화

일본의 기술진은 디지털화, 정보통신과의 융합화 등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종래품의 설계는 상당부분을 현지에서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계 세트 메이커의 대부분은 제조부문에 R&D기능을 갖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심천) 및 인도네시아에서의 R&D기능 설치도 눈에 띈다.

부품 인정에 대해서는 부품의 중요도에 따라 일본과의 역할분담이 행해지고 있으나 현지기술자의 자질 및 경험부족으로 인해 고심하고 있는 회사가 많은 듯하다.

3. 주요 전자기기의 동향

1) 가정용 기기는 전체적으로 저하

AV기기의 생산은 일부 생산을 계속하는 메이커가 있지만, 인근

국가나 멕시코에의 이전을 대부분 완료한 상태에서 MHQ를 제외하면 중반을 향하고 있는 느낌이다.

2)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정보기기

비교적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휴대전화기와 HDD이다. 하지만, PC나 주변기기는 미국계 기업이 새로운 경영 파트너와의 전개를 구체화하거나 인근 국가에의 재투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이 있어, 부품메이커로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4. 전자부품 업계의 동향

1) 일본계 부품메이커

순조롭게 생산을 확대해 온 부품업체지만 일부 생산품목의 '98년 예측에서는 격감하거나 철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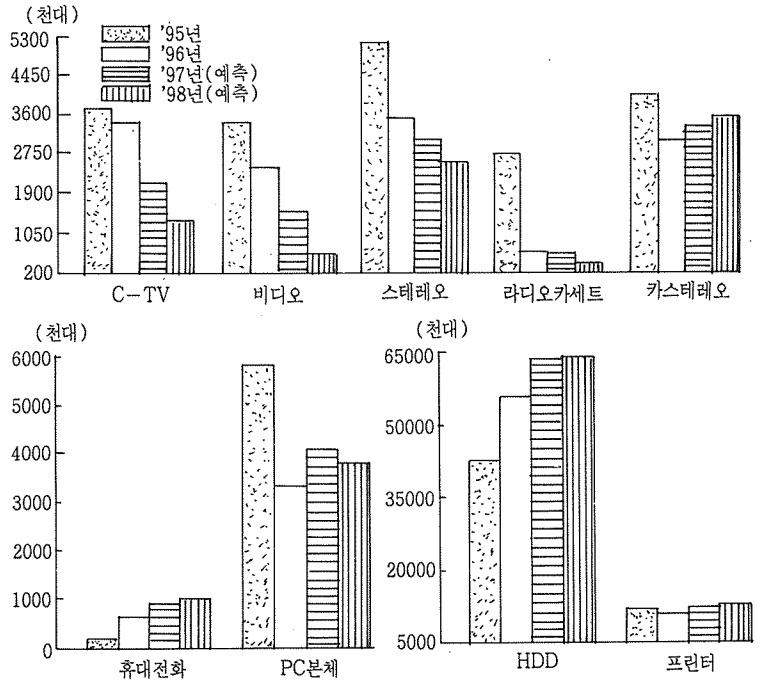
부품판매의 중심지는 싱가포르였으나, 세트메이커에 있어서의 IOP의 존재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품메이커 자신이 세트메이커와 함께 현지에 창고를 가지고 판매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는 IPO의 물류코스트가 부품메이커에게 있어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 현지 부품메이커

기구부품, 스위치 등 생산품목이 상당히 많으며, 세트메이커에

도표 3 주요기기생산동향



서는 사용용도에 따라 일본계와 현지업체의 부품을 선택해 채용하고 있다.

3) 한국·대만계 메이커

한국계는 주로 C·R을 중심으로 수량적인 쉐어확대에 노력해 저가격공세를 펼치고 있어 세트메이커의 채용도 늘고 있다.

대만계는 다층 프린트 기판이 강하며, 특히 4층, 6층 기판은 가격적으로 우위에 있다.

5. 싱가포르에 있어서의 전자부품 비즈니스의 과제

1) 싱가포르 정책의 활용

OHQ나 RHQ를 잘 이용해 각종 인센티브를 취득하고 고수익을 올리는 시스템 구축을 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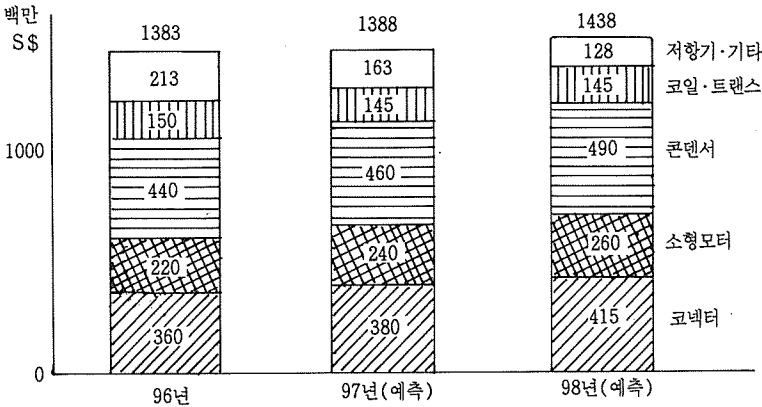
2) 싱가포르의 인프라 활용

제조 코스트를 내리기 위해 경영의 슬림화는 당연하지만,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충실한 운수업, 로지스틱스 및 광섬유에 의한 정보통신 등 세계 1위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단담기 대응 및 서비스 기지의 확대를 행할 필요가 있다.

3) 인재 재개발

기술적으로 상당한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어 재교육이 필요하다.

주요전자부품생산동향



인재의 재개발은 인근 국가의 R&D 기술자양성과도 관련이 깊다.

10 인도네시아

1. 일반개황

최근 3년간을 보면, 경제활동에 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정책 및 외자유대정책을 계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외자를 포함한 투자의 증가 및 수출의 신장 그리고 민간 소비의 확대가 이루어져 '95년에는 실질경제성장률 8.1%를 기록하였으며, 정부는 5개년 계획을 상향 수정해 년평균 성장률을 7.1%, 계획종료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280불로 목표를 잡고 있다.

'96년에는 민간소비가 호조를 보였는데, 특히 자카르타 주변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을 넘어서서 중간층을 중심으로한 소비재 수요가 현저히 신장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외국계의 투자는 대형 인프라와 석유관련 부문에서 다소 감소하여 전년대비 25% 감소한 299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수출도 다소 둔화하여 10% 신장에 머물러 경제성장률은 7.9%로 약간 감소기미를 보였다.

'97년의 경제성장률은 수출에 있어서는 전년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나 민간소비의 둔화가 예상되어 7.2~7.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 투자환경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는 '88년부터 본격화해 순조로이 증대되어 왔다. '93년에는 중국에의 진출분이 있어 감소하였으나, '94년에는 다시 전년대비 191.3% 증가, '95년에는 전년대비 68.2% 증가, '96년에는 약간 둔화한 25%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최근 3년간의 인가액은 외자를 도입하기 시작한 '67년 이후 '96년말까지의 누적인

가액 1,714억 5,500만불의 약 55%에 달해 공전의 투자붐이 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투자붐을 배경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투자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

1) EPTE(인정수출생산공장) 도입으로 알 수 있듯이 수출지향형 투자에의 우대조치 및 일련의 외자유계의 완화 등으로 '95년 배이스로투자인가액의 제조업비율 67.3%, 수출지향형 안전비율 58.6%

2) 인구 2억명을 배경으로 한 풍부하고 양질인 노동력, 저렴한 노동코스트, 인도네시아 주변국(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에 있어서의 노동력 부족, 임금의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의 우위성이 명확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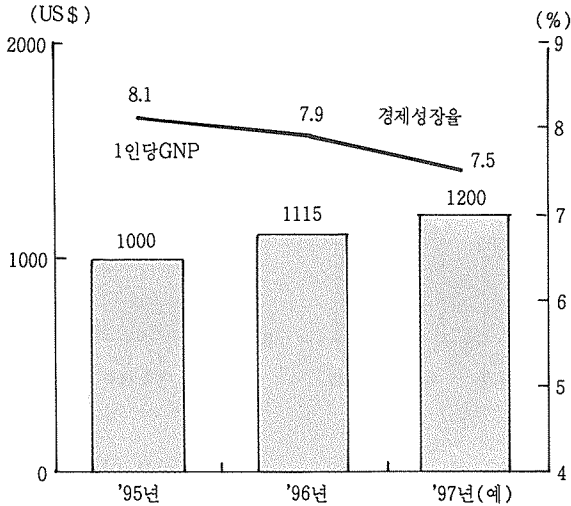
금후에도 상당수의 젊은 노동자의 참여가 예상되므로 이 우위성은 계속될 것이다.

3) 인프라의 정비, 자카르타 주변에는 MM2100, 동 자카르타 공업단지(EJIP), 카라완 공업단지(KITC) 등의 공업단지를 비롯해 다수의 공업단지가 정비되어 있으며, 최근의 투자호조에 힘입어 일부에서는 확장공사가 행해지고 있다.

4) 가전제품, 자동차 등의 국내 시장에서의 구매력 증가

인구 1천만명을 넘는 도시 자카르타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이미

물가상승율과전자산업임금동향



외국직접투자액

(인가베이스 단위/백만미불)

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외국직접투자액	8,142	23,724	39,914	29,900

3,000불을 넘어서서 시장으로서의 매력력이 높아지고 있다.

5) 장기 안정정권과 행정부의ダイ나믹한 개혁정책

3. 노동환경

'97년 2월에 이미 인구가 2억을 돌파해 세계 5위를 기록하였으며, 또 연간 싱가포르 인구에 필적하는 약 300만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ASEAN의 인구대국이다.

특히, 인구의 60%가 자외섬(국토 총면적의 7%)에 집중되어 있어 세계적으로도 인구밀도가 높다.

노동력인구는 매년 150만명 이상의 젊은 노동자들이 시장에 참

여하여 풍부하지만, 전취업자의 약 70%가 초등학교 졸업이거나 그 이하여서 질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94년부터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9년간으로 할 방침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는 교육수준도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 임금

자카르타의 최저임금은 매년 2자리 상승을 계속해 금년에도 10.6% 상승하였다.

수퍼 바이저급은 월 80만Rp정도, 관리직급은 월 100만 Rp 이상으로, 계층별 임금격차가 대단히

큰 것이 특징이나, 전체적으로 주변국가에 비하면 임금의 우위성은 당분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 고용

현장노동자의 채용은 기술검정등을 실시하여 행하고 있으며, 정착율도 매우 좋은 편이다. 통근문제, 종업원은 시내로부터의 통근을 위해 회사 버스를 운행시키고 있으나, 조업시간에 맞추어 종업원을 출근시키는데는 각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리직급(관청과의 허인가 절차는 인도네시아인을 창구담당으로 하는 케이스가 많다)의 채용은 인재부족으로 고심하고 있다.

기술자, 중간관리직의 부족도 문제인데, 이는 로컬화가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장지도 등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로부터 출향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인은 언어 핸디캡이 적어 효과적이다.

4. 전자산업의 동향

종래는 주로 국내 시장용을 중심으로 제조, 판매하는 메이커가 다수를 점해 생산규모가 적었다.

'94년부터 EPTE제도의 도입에 의해 장래의 국내시장의 전개와 새로운 가격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지로써 NIES제국으로부터 생산의 재이전이 발생해 생산규모도 순조로이 확대해 년평균 15~20%의 신장을 예측하고 있다.

1) 국내시장

가전시장규모는 연간 2.3~2.5조 루피아(1,100억엔~1,200억엔)로 추정되고 있다. 시장규모는 작아 40년전의 일본과 동일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중산계급이 형성되고 있어 가전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C-TV가 가장 구매후선도가 높은 상품이다(참고: 14"는 40만 루피아)

(주요가전제품의 국내총수요와 보급율)

품목	수요	보급율
CTV	1,300	15
라디오카세트	900	20
냉장고	550	11
에어컨	220	4

인구 2억명, 세대수 4000만세대로 하고 하는 큰 시장이나 아직 전기보급율은 40% 정도로 낮으며, 또 전기용량 450W 가정이 전체 전기보급세대의 70%에 머물고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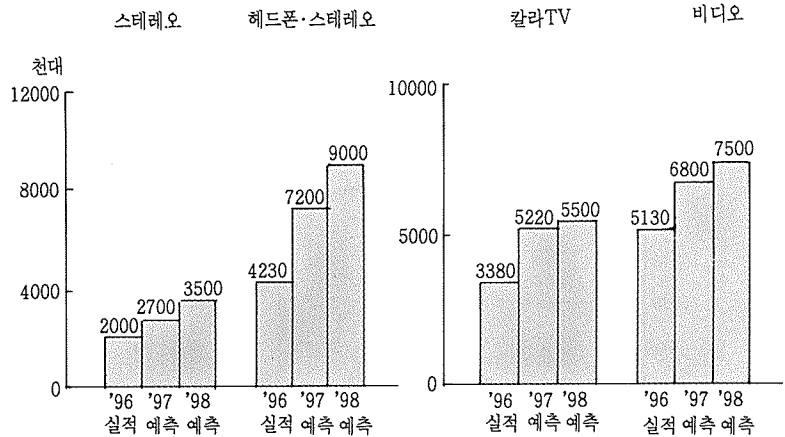
이러한 점에서 가전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2) 주요전자기기의 생산동향

① C-TV

인도네시아에 재이전을 행하고 있는 일본계, 한국계가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가 수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있어 '97년에는 전년대비 54.4% 신장이라고 하는 경이적인 수치가 예상된다.

생산품목은 14"~21"가 주력으로 로우엔드 품목이 이전되고 있는데, 중국제품과의 가격경쟁력 여하에 따라 생산량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메이커(LG)가 10만평의 대지에 브라운관 공장, TV공장의 준공에 들어가 있어 본격적으로 조업이 시작되면 인도네시아는 TV의 일대 생산거점이 될 것이다.

② 비디오

다른 생산거점(말레이시아, 상하이, 태국)은 담보상태에 있으나, 금년도에 32.5% 신장을 예상하고 있어 국제가격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술한 한국메이커가 조업을 개시하고 또 일본계 메이커의 재이전이 증가하면 금후의 생산량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③ 오디오

스테레오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부터 중국과 인도네시아로 재이전이 진행되고 있어 '97년도에는 전년대비 37.5%의 생산신장이 예상되며, 금후에도 양적인 이전은 계속될 것이다.

헤드폰 스테레오는 말레이시아로부터의 재이전에 의해 금년도에는 720만대(전년대비 70.2%)가 예상된다. '98년에는 생산량에서

말레이시아를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외로는 PC주변기기인 프린터, 모니터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금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전자부품기업의 동향

세트메이커는 「허브」(싱가폴)와 「스포크」(인도네시아)의 관계에 의해 전자부품의 구매는 싱가포르의 IPO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때문에 전자부품메이커의 진출도 적고 또 생산도 소규모였다.

그러나 최근 세트메이커는 수출기지로써의 역할이 강화되어 생산규모의 급속한 확대와 가격경쟁력의 확보 등을 위해 부품재료의 현지조달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세트의 수출기지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부품의 수출기지로써의 위치부여에 대해 부품메이커로서 충분히 검토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